

한국의 동남방언과 일본의 이즈모 방언의 억양에 대한 비교

이병운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The Contrastive Study on Intonation of the Southeast Dialect in Korean and the Izumo Dialect in Japanese

Byung Woon Lee
College of Educatio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Pusan National University

bwnlee@pusan.ac.kr

1. 머리말

한국어에서 동남방언(이 글에서는 주로 경남방언)은 여러 방언과는 다른 독특한 성조와 억양을 가지고 있다. 동남방언의 운율적 특성은 문법이나, 어휘적 특성보다도 훨씬 끈질겨서, 학교교육과 방송매체의 영향으로도 사라지지 않고 그 본질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시마네현(島根縣)의 이즈모(出雲)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서일본의 환동해지역이 고대로부터 한반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일본의 正史인 日本書紀에 기록된 신화(素盞鳴尊), 出雲風土記의 나라끌기신화(國引き神話) 및 한반도의 삼국 관련 인명과 지명 등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지역의 언어 역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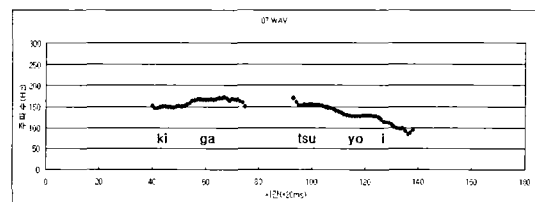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雲伯方言(이즈모방언)의 음운적 특성 그 가운데서도 운율적 요소인 억양이 한국의 동남방언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은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직접 전형적인 시마네 방언을 구사하는 제보자의 방언을 채록하여 음성분석 프로그램(Xwaves)으로 분석하여 비교·대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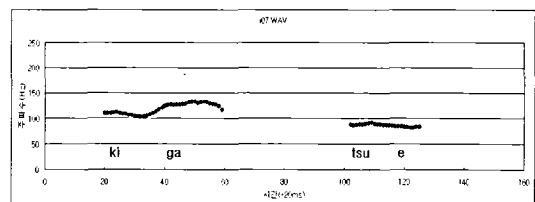
2. 동경방언과 이즈모 방언

2.1. 체연구 억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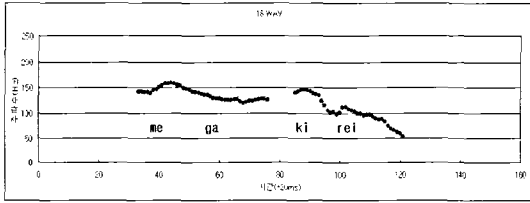
동경방언과 이즈모 방언의 체연구의 억양(액센트)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먼저 체연구에서 체언의 음절 수에 따라 액센트가 다르고 그에 따라 조사의 액센트도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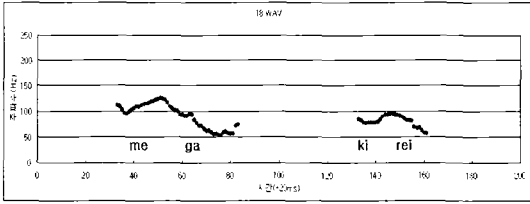
기운이(kiga)[LH] 세다 (동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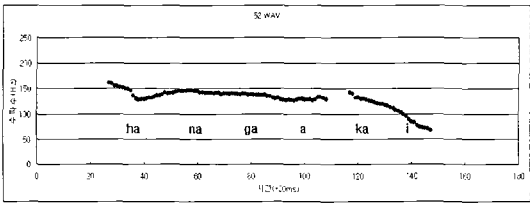
kiga[LH] 세다 (이즈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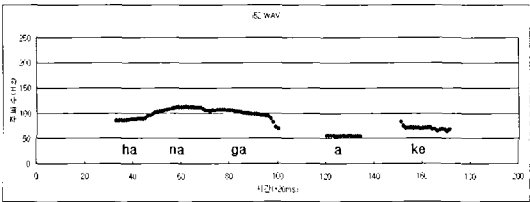
눈이(mega)[HL] 예쁘다 (동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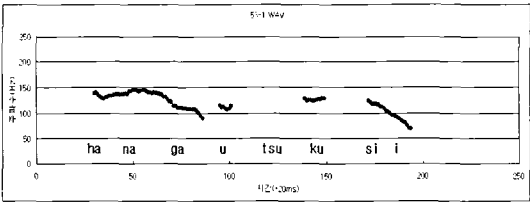
mega[HL] 예쁘다 (이즈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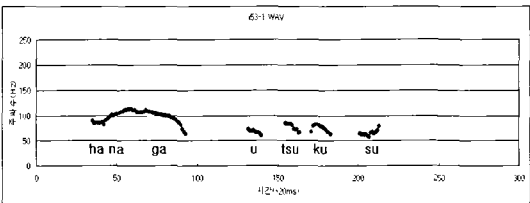
코가(hanaga)[LHH] 붉다[akai] (동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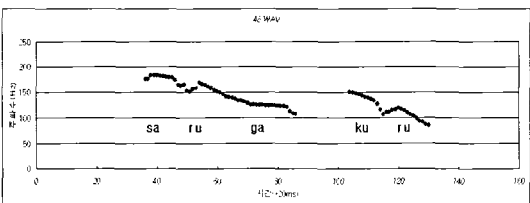
hana-ga[LHH] ake (이즈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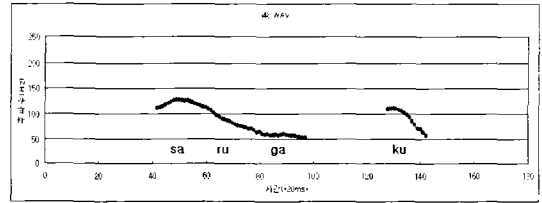
꽃이(hana-ga)[LHL] 아름답다[utsukusii] (동경)



hana-ga[LHL] utsukusu (이즈모)



원숭이가(saru-ga)[HLL] 산다[kuru] (동경)



saru-ga[HLL] ku: (이즈모)

그림 1 동경방언(동경)과 이즈모방언의 체언구의 억양

표 1 일본어의 동경식 액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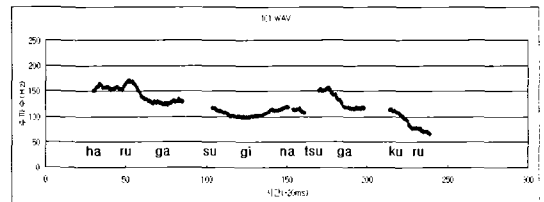
		1음절어		2음절어		3음절어		
체언의 액센트		L	H	LH	HL	LHL	LHH	HLL
동경방언	동경(조사)	H	L	H/L	L-	L	H/L	L
	어절 끝	수평조	수평조	수평조 내림조	내림조	내림조	수평조 내림조	내림조
이즈모방언	이즈모(조사)	H	L	H/L	L-	L	H/L	L
	어절 끝	수평조	내림조	수평조 내림조	내림조	수평조	수평조 내림조	내림조

표 2 동경어의 액센트 체계(일본어 발음액센트, NHK방송문화연구소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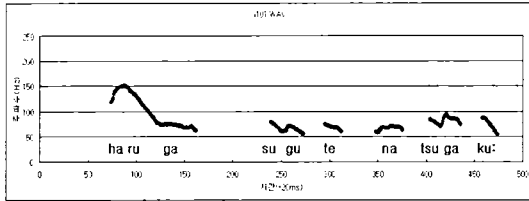
모라	음운형	음성형	보기	단어유형
1	/o/	[○]+[○]	na-ga	名・日・蚊・血..
	/o/	[○]+[○]	na-ga	菜・火..
2	/oo/	[○○]+[○]	hana-ga	鼻・俗・振る..
	/oo/	[○○]+[○]	hana-ga	花・山・川・橋..
	/oo/	[○○]+[○]	umi-ga	海・暮・雨・猿・降る・良い
3	/ooo/	[○○○]+[○]	sakura-ga	櫻・形・宛・雀・鼻も・俗も・赤い..
	/ooo/	[○○○]+[○]	atama-ga	頭・男・女..
	/ooo/	[○○○]+[○]	kokoro-ga	心・思い・晴れる・白い..
	/ooo/	[○○○]+[○]	kaiko-ga	晝・椿・出づ・齒・蹴る..
4	/oooo/	[○○○○]+[○]	sanpatsi-ga	散髪・水泳・面長・學校・新聞・養う..
	/oooo/	[○○○○]+[○]	oto:to-ga	弟・妹..
	/oooo/	[○○○○]+[○]	kagaribi-ga	篝火・止まり木・隠れる・涼しい..
	/oooo/	[○○○○]+[○]	murasaki-ga	紫・國國・色紙..
	/oooo/	[○○○○]+[○]	huzisan-ga	富士山・椎茸・今晚..
N

2.2. 용언구(용언의 어간과 연결어미)의 억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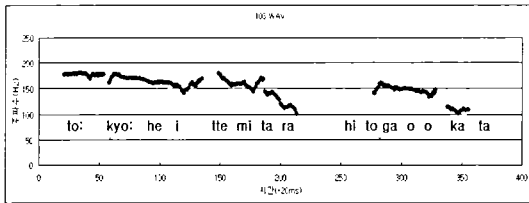
대등연결어미와 종속연결어미 모두 두 방언에서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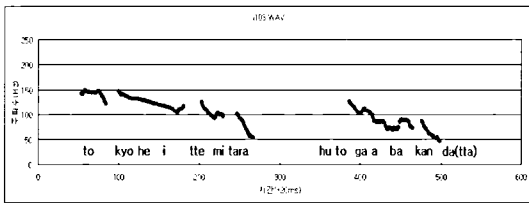
봄이 가고 여름이 온다. (동경)



봄이 가고 여름이 온다. (이즈모)



토쿄에 가니 사람이 많았다. (동경)



토쿄에 가니 사람이 많았다. (이즈모)

그림 2 동경방언(동경)과 이즈모방언(이즈모)의 연결 어미 역할

2.3. 문미역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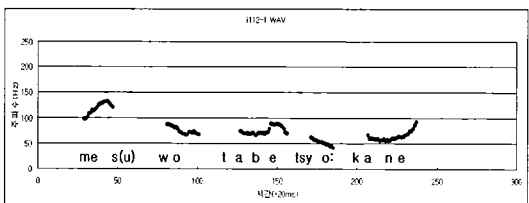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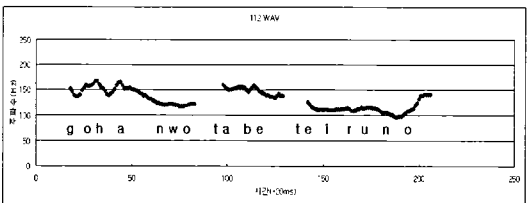
1) 서술문, 청유문, 명령문에서는 별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2) 의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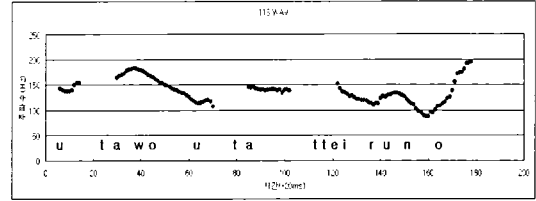
의문문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를 판정 의문문, 설명 의문문, 확인 의문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 판정 의문문

판정 의문문은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의문문이다.



밥을 먹고 있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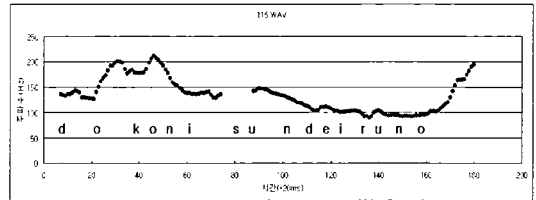


노래를 부르고 있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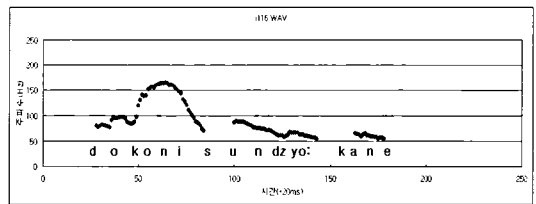
그림 3 동경방언(위)과 이즈모방언(아래)의 판정 의문문의 역할

판정 의문문에서 동경방언과 이즈모방언이 모두 일반적으로 오름조로 나타난다. 다만 동경방언에 비하여 이즈모방언의 오름의 정도가 작고 느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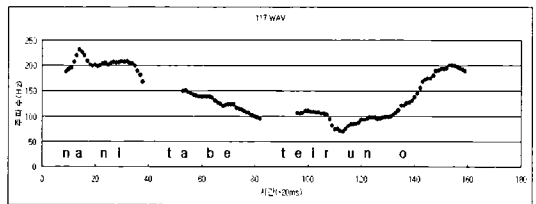
㉡ 설명 의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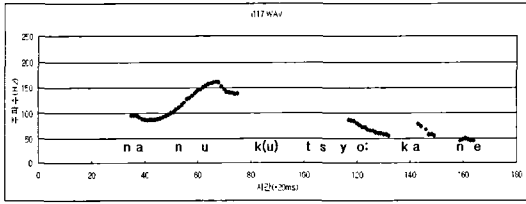
어디에 살고 있니? (동경)



어디에 살고 있니? (이즈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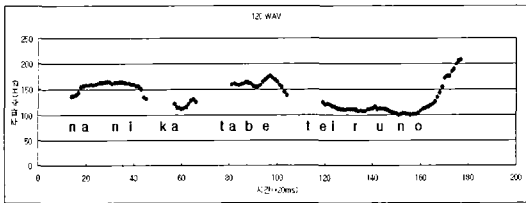
뭐 먹고 있니? (동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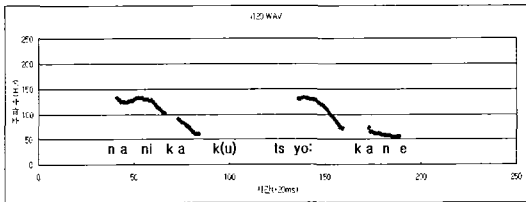
뭐 먹고 있니? (이즈모)
 그림 4 동경방언(왼쪽)과 이즈모방언(오른쪽)의 설명 의문문의 억양

동경방언은 의문사 의문문에서 대부분 온오름조이다. 그러나 이즈모방언에서는 모두 내림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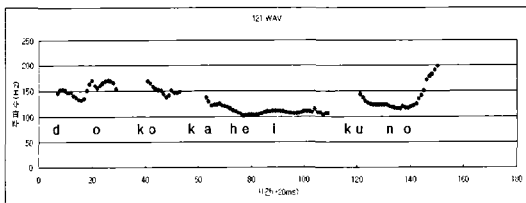
㊤ 확인 의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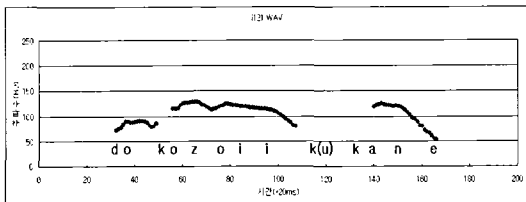
무언가 먹고 있지?



무언가 먹고 있지?



어딘가에 가고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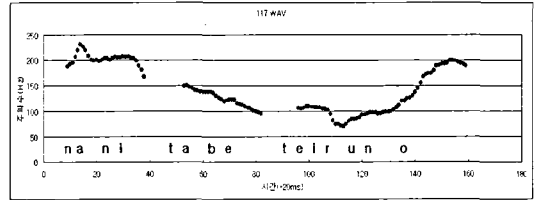


어딘가에 가고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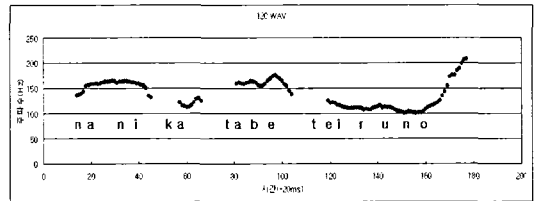
그림 5 동경방언(위)과 이즈모방언(아래)의 확인 의문문의 억양

확인 의문문에서 두 방언은 문장 끝의 억양이 완전히 반대다. 곧 동경방언에서는 온오름조이고, 이즈모방언에서는 내림조이다. 그런데 두 방언에서 설명 의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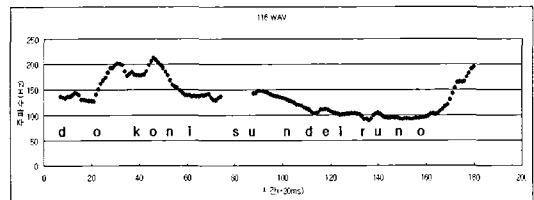
과 확인 의문문의 차이는 문장 끝의 억양 차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의문 대명사의 억양으로 변별하고 있다.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동경방언에서는 설명 의문문에서는 '뭐'[nani]라는 의문대명사의 억양이 아주 높은 데(200Hz)서 내려가는 내림조이고, 뒤이은 용언구[tabe]도 내림조이다. 그러나, 확인 의문문에서는 '뭐'[nani]가 낮은 수평조이고 강세가 적으며, 용언구[tabe]가(be에 치오름이 있는) 높은 수평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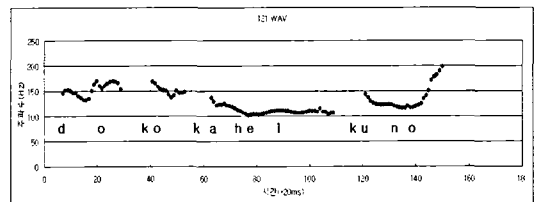
뭐 먹고 있니? (의문사)



무언가 먹고 있지?(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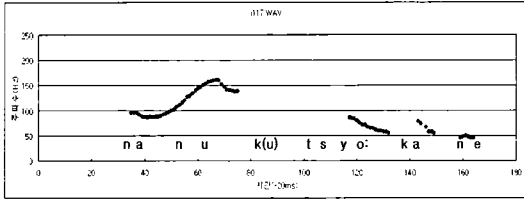
어디에 살고 있니?(의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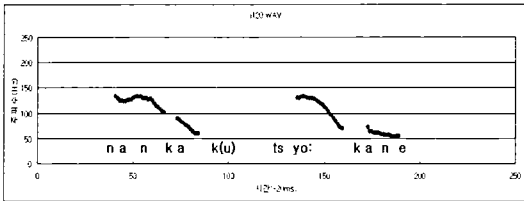
어딘가에 가고 있지?(확인)

그림 6 동경방언의 설명 의문문(왼쪽)과 확인 의문문(오른쪽)의 억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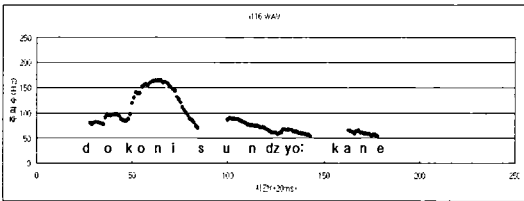
그런데 이즈모방언에서도 문장 끝의 억양은 두 의문문에서 다 같이 내림조인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동경방언과 달리 설명 의문문에서 오름조이고 확인 의문문에서는 강세가 있는 내림조이다. 이것은 한국의 동남방언에서 설명 의문문 /어데 가노?/에서 /어데/가 오름조이고, 확인 의문문 /어데 가나?/에서 /어데/가 내림조인 것과 아주 비슷하다(이병운 : 1997,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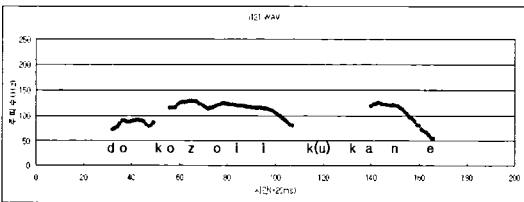
뭐 먹고 있니?(의문사)



무언가 먹고 있지?(확인)



어디에 살고 있니?(의문사)



어딘가에 가고 있지?(확인)

그림 7 이즈모방언의 설명 의문문(왼쪽)과 확인 의문문(오른쪽)의 억양

3. 동남방언과 이즈모 방언의 억양

3.1. 동남방언과 중부방언의 억양

- 1) 동남방언에서는 조사가 중조를 이루고 음성형에서는 앞 음절의 높이보다 낮고, 중부방언에서는 고조를 이룬다.
- 2) 체언구의 억양은 동남방언에서 첫음절이 저조일 경우 느린 오름조를, 첫음절이 중조일 경우 오르내림조를, 첫음절이 고조일 경우 계단식 내림조를 이루고, 중부방언에서는 첫 음절이 중조일 경우, 오름수평조를, 첫음절이 고조일 경우, 높은수평조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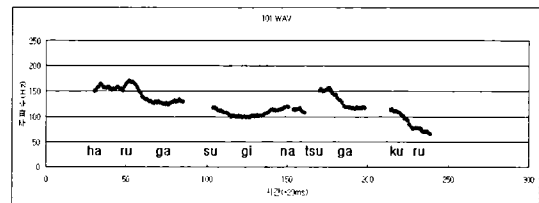
표 3 동남방언과 중부방언에서의 낱말과 조사의 억양

방언 기저성조	경남방언(K)		경북방언(KI)		중부방언(S)	
	낱말	조사	낱말	조사	낱말	조사
말(言)[L]	L	M	H	M	M	H
배(倍)[L]	L	M	H	M	M	H
말(斗)[M]	M	M	M	H	M	H
배(舟)[M]	M	M	M	H	M	H
말(馬)[H]	H	M	M	M	M	H
배(梨)[H]	H	M	M	M	M	H
안개[LM]	LM	M	HM	M-	MH	H
사람[LM]	LM	M	HM	M-	HH	H
바람[MH]	MH	M	MH	M	MH	H
나물[MH]	MH	M	MH	M	MH	H
아들[HM]	HM	M-	HM	M-	MH	H
하늘[HM]	HM	M-	HM	M-	HH	H
구름[HH]	HH	M	HH	M	HH	H
그름[HH]	HH	M	HH	M	HH	H
꿈뻑이[LMM]	LMM	M-	HMM	M-	MHH	H
거머리[LMM]	LMM	M-	HMM	M-	MHH	H
까마귀[MHM]	MHM	M-	MHM	M-	MHH	H
미나리[MHM]	MHM	M-	MHM	M-	MHH	H
방이리[HMM]	HMM	M-	MHM	M-	MHH	H
가물치[HMM]	HMM	M-	MHM	M-	MHH	H
할아비[HHM]	HHM	M-	MHM	M-	HHH	H
무지개[HHM]	HHM	M-	MHM	M-	HHH	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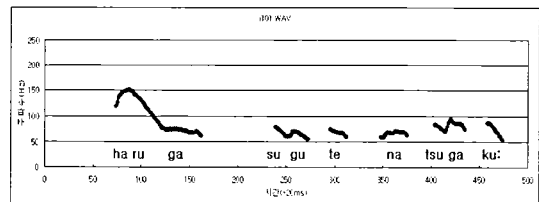
3.2. 동남방언과 이즈모 방언의 체언구 끝 억양

- 1) 중부방언이 높은 수평조인 것에 반해 동남방언은 일반적으로 내림조이다.
- 2) 동경방언과 이즈모방언에서 조사에 특별히 액센트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수평조 또는 내림조이고, 특히 이즈모 방언에서 내림조가 많다.
- 3) 동남방언과 이즈모방언의 체언구의 끝 억양은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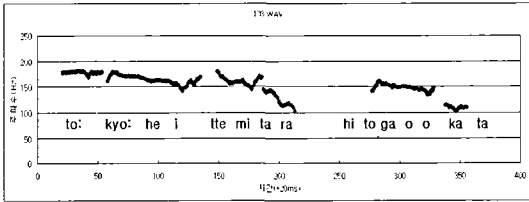
3.3. 동남방언과 이즈모 방언의 용언구(연결어미) 억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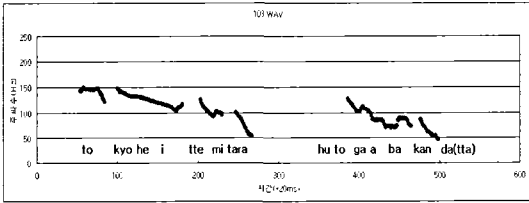
봄이 가고, 여름이 온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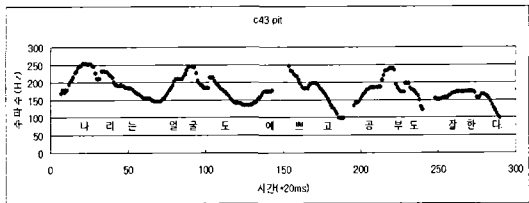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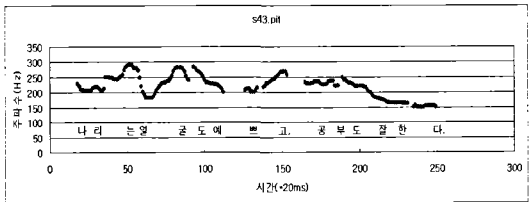


동경에 가보니, 사람이 많았다.



동경에 가보니, 사람이 많았다.

그림 8 동경방언(위)과 이즈모방언(아래)의 연결어미의 억양



중부방언(위)과 동남방언(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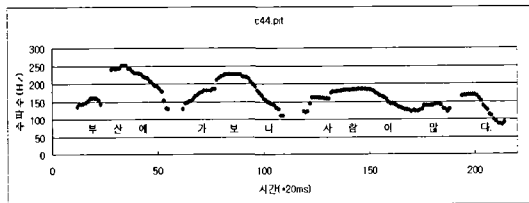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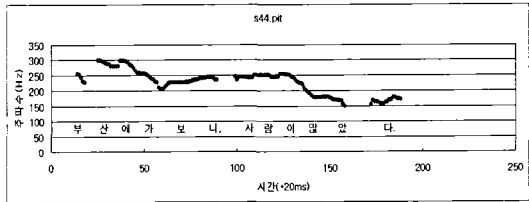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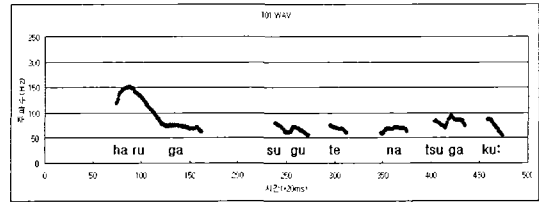


그림 9 중부방언(위)과 동남방언(아래)의 연결어미의 억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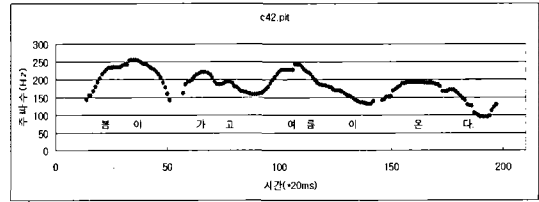
- 1) 동경방언은 수평조 또는 내림조이나, 이즈모 방언은 내림조이다.
- 2) 중부방언은 오름조 또는 수평조이고, 동남방언은 내

림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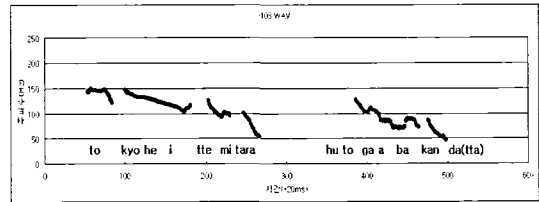
- 3) 일본의 이즈모 방언과 한국의 동남 방언은 같은 내림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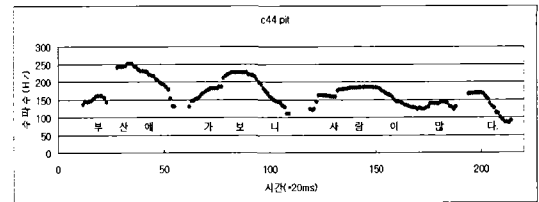
봄이 가고, 여름이 온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온다.



동경에 가보니, 사람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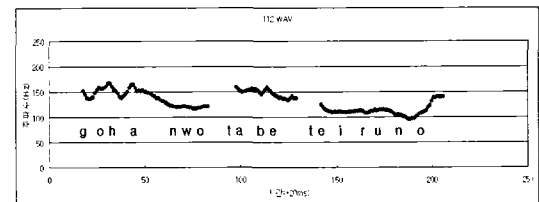
동경에 가보니, 사람이 많았다.

그림 10 이즈모방언(위)과 동남방언(아래)의 연결어미의 억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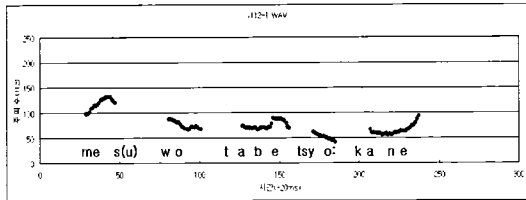
3.4. 문미 억양(의문문)

3.4.1. 판정 의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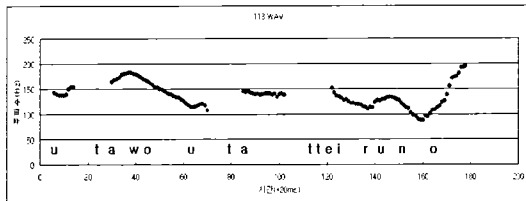
- 1) 동경방언은 오름조이고, 이즈모 방언은 수평조에서 끝이 조금 오름조이다.
- 2) 중부방언은 오름조이나, 동남방언은 모두 내림조이다. 끝이 조금 오름조이다.
- 3) 동남방언과 이즈모 방언의 억양 유형은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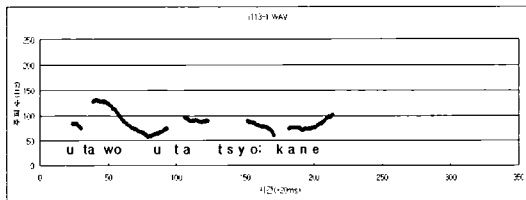
밥을 먹고 있니?



밥을 먹고 있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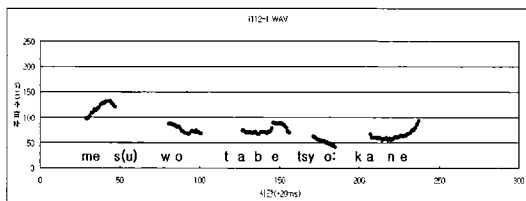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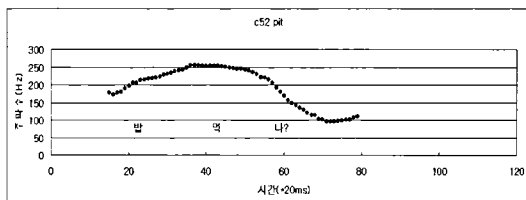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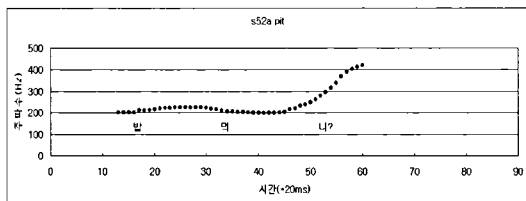


노래를 부르고 있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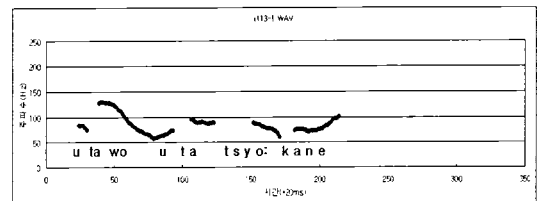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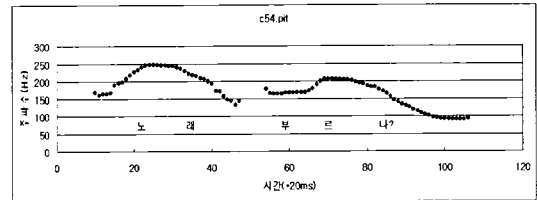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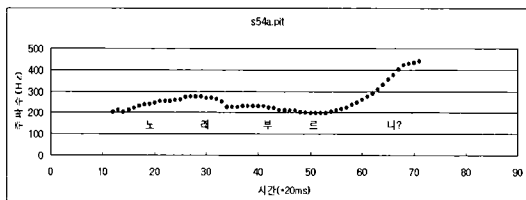


노래를 부르고 있니?

그림 11 동경방언(위)과 이즈모 방언(아래)의 판정 의문문의 문미 억양



밥을 먹고 있니? (중부, 경남, 이즈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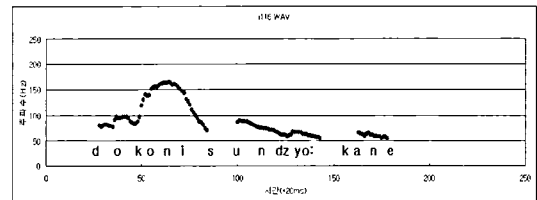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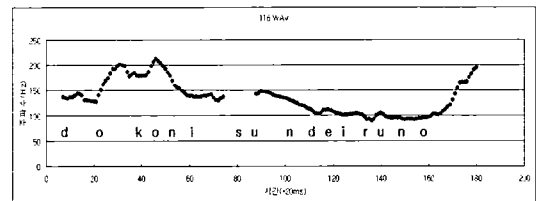


노래를 부르고 있니? (중부, 경남, 이즈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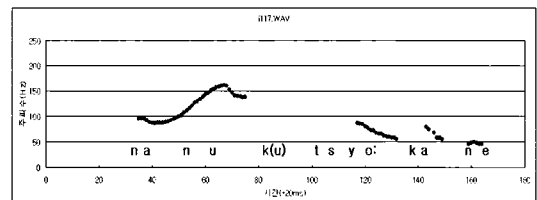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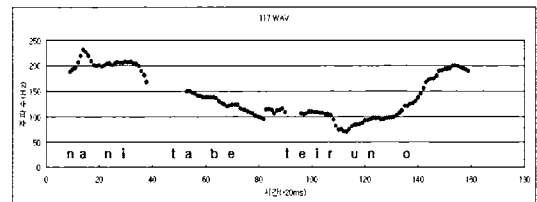
그림 12 중부방언(위), 경남방언(가운데), 이즈모방언(아래)의 판정 의문문의 문미 억양

3.4.2. 설명 의문문

- 1) 동경방언에서는 판정 의문문과 동일하게 오름조이나, 이즈모 방언에서는 수평조 또는 내림조이다.
- 2) 중부방언은 판정 의문문과 동일하게 오름조이나, 동남방언 또한 판정 의문문과 동일하게 내림조이다.
- 3) 이즈모방언과 동남방언의 설명 의문문의 문미 억양의 유형은 동일하다.



어디에 살고 있니?



뭐 먹고 있니?

그림 13 동경방언(위)과 이즈모방언(아래)의 설명 의문문의 문미 억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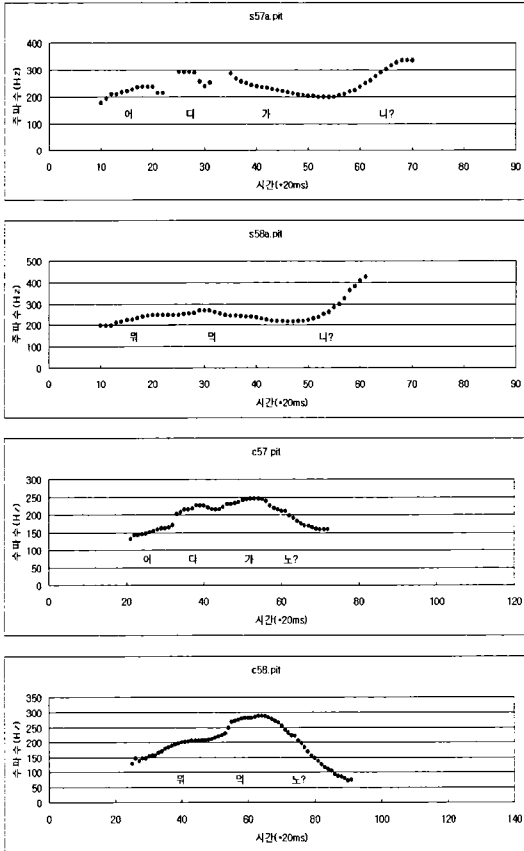


그림 14 중부방언(위 2), 경남방언(아래 2)의 설명 의문문의 문미 억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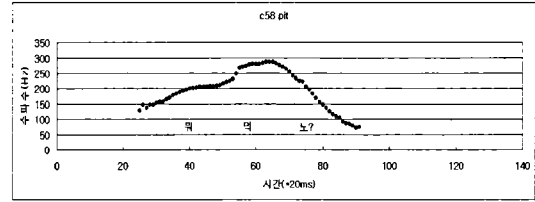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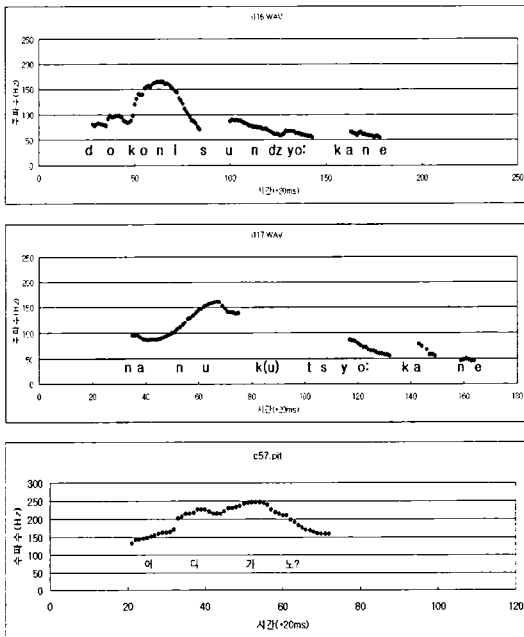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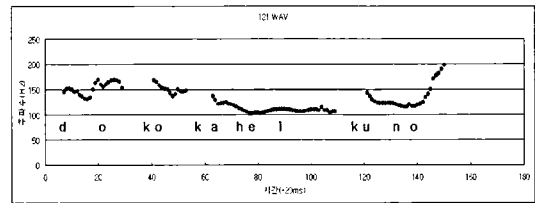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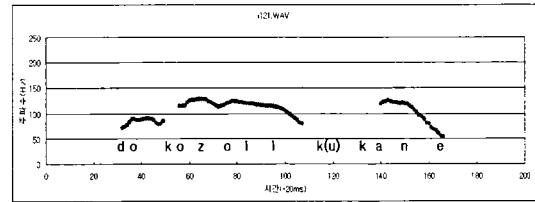
그림 15 이즈모방언(위)과 경남방언(아래)의 설명 의문문의 문미 억양

3.4.3. 확인 의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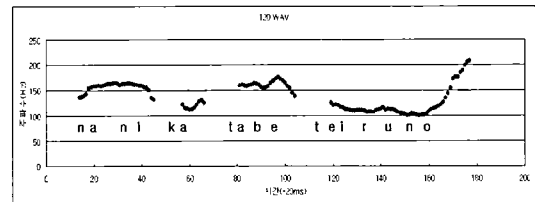
- 1) 동경방언의 억양은 판정, 설명 의문문과 동일하게 오름조이나, 이즈모 방언 또한 설명 의문문과 비슷한 내림조이다.
- 2) 중부방언의 억양은 설명 의문문과 유사한 은오름조이나 대명사의 억양에 차이가 있다.
- 3) 이즈모방언과 동남방언에서 확인 의문문의 억양 유형은 아주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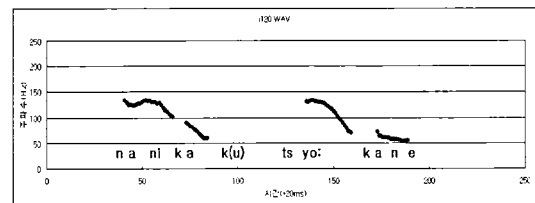
어딘가에 가고 있지? (동경)



어딘가에 가고 있지? (이즈모)



무엇을 먹고 있지? (동경)



무엇을 먹고 있지? (이즈모)

그림 16 동경방언(위)과 이즈모방언(아래)의 확인 의문문의 문미 억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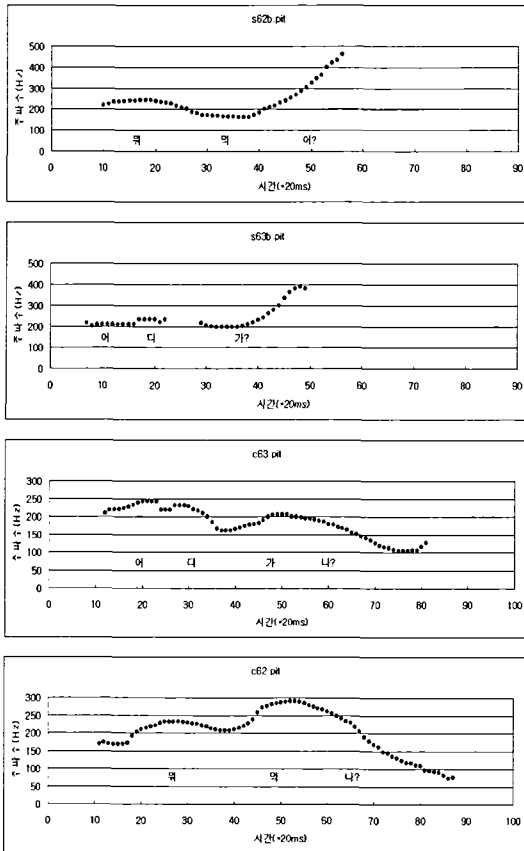


그림 17 중부방언(위 2)과 경남방언(아래 2)의 확인 의문문의 문미 억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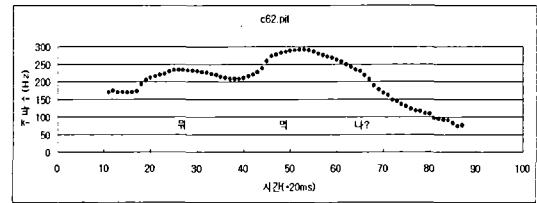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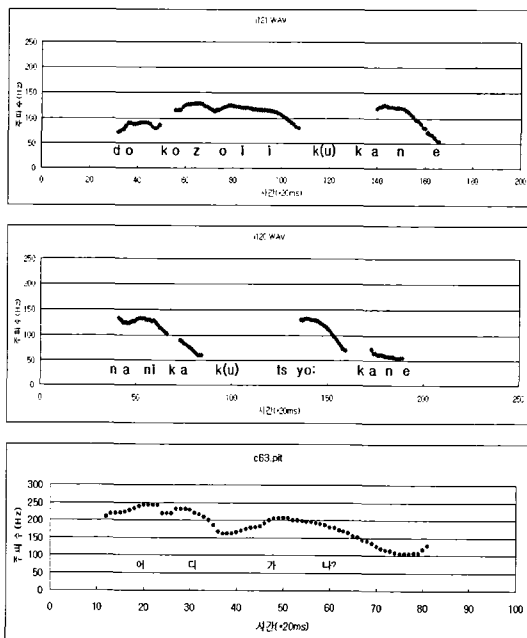


그림 18 이즈모방언(위 2)과 경남방언(아래 2)의 확인 의문문의 문미 억양

4. 맺음말

일본의 이즈모 방언은, 한국의 동남방언 그 가운데서도 경남방언과 체연구, 용연구의 어절 억양뿐만 아니라 문미 억양, 특히 의문문의 문미 억양은 그 유형이 아주 유사하다.

참고문헌

- [1] 김영만(1966), '경남 방언의 성조', 국어국문학 31호, 국어국문학회
- [2] 김영만(1966), '경남 방언의 성조', 국어국문학 31호, 국어국문학회
- [3] 김영만(1986), 국어 초분절음소의 사적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 [4] 김차균(1970), '경남 방언의 성조 연구', 한글 145호, 한글학회
- [5] 김차균(1973), '국어 성조론과 서부 경남 방언의 성조', 한글 152호, 한글학회
- [6] 김차균(1975), '경상도 방언의 성조형', 어학연구 11.2, 서울대 어학 연구소
- [7] 김차균(1977), 경상도 방언의 성조 체계,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8] 김차균(1993), 우리말의 성조, 태학사
- [9] 문효근(1974), 한국 방언 성조의 실험음성학적 분석연구, 연세논총 11. 연세대.
- [10] 이병운(1997), '경남방언의 억양 연구', 우리말연구 7집, 우리말연구회
- [11] 이병운(1998), 중부방언, 경남방언, 전남방언의 억양에 대한 비교 연구, 우리말연구 9집, 우리말학회
- [12] 이병운(2000), 중세국어의 음절과 표기법 연구, 세종출판사
- [13] 이병운(2002), 방언의 월 끝 억양의 유형, 음성과학 제9권 2호, 한국음성과학회
- [14] 이병운(2004), 표준어 억양 교육 연구, 우리말연구 13집, 우리말학회
- [15] 이숙향(1985), '한국어 문미 억양에 관한 연구, 말소리 11-14, 대한음성학회